로컬플러스

원광대병원, 시민 건강강좌 열려

지난 달 31일 오전 11시경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에서 제6회 어깨 관절의 날을 기념하는 시민 건강강좌가 열렸다. 교수연구동 5층 소강당에서 원광대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주관으로 열린 이날 건강강좌에는 어깨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보호자 및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건강강좌는 어깨 관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열린 강좌이다.

원광대병원 정형외과 관계자는 "우리들의 어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많은 혹사를 당하는데 통증이 반복되어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기회에 건강한 어깨 관절을 위한 정확한 원인과 증상, 진단 관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난치성질환 어리이 돕기

군산시청 직원들이 아름다운가게 나눈점과 함께 지역 내 소아당뇨증후군이란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산시와 아름다운가게 주관으로 개최된 '아름다운 하루 나눔장터'는 지난 1일 시청 민원실 앞 광장, 2일에는 아름다운가게에서 개최됐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마련된 물품 1,600여점은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번 나눔장터 수익금 전액은 지역 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의 의료비에 전액 쓰여 질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해경, 사고대응·부패방지 '목격자 신고제도' 홍보 나서

해양경찰이 사고대응 및 부패방지를 위해 '목격자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산해경은 전라북도 면적의 약 3.7배에 달하는 바다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민의 신고 전화가 구조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인명구조, 유공자는 물론 해양오염, 범죄,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부패·공익 신고 등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산해경 김주언 기획운영과장은 "바다의 특성상 신고자가 목격 상황과 개략적 위치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해양사고 대응에 큰 도움이 된다"며 "해양사고 목격 시 망설이지 말고 122번이나 119(재난)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민문화회관 활용방안 시급

리모델링 예산 확보·활용용도 찾지 못한채 수년째 방치 상태

군산시민문화회관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때 시민문화회관은 군산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자리했으나 예술의전당이 개관하면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 예술의전당이 개관함에 따라 군산시는 시민문화회관 매각을 진행했으나 실패했고, 2013년 10월 리모델링을 통해 시가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시는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확보해야 할 3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확보한 예산 12억원 가운데 3억원 마저 불용처리 됐다.

이처럼 시는 현재까지 관련 예산도 확보 하지 못하고 있으며 활용용도 또한 찾지 못한 채 시간만 축내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시가 리모델링을 통해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했을 당시 예술의전당은 전문적인 기획공연 장으로 활용하고 시민문화회관은 일반시민을 위한 공연장이나 전시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시의회와 지역사회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시의회와 간담회에서는 종합안전체험관, 생활과학체험관 조성을 활용방안으로 제안했으며 이들 계획안 모두 국비예산 확보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활용목적을 정하지 못하고 장기 표류중인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활용방안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김모씨는 "어린이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군산시 정책에 따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쉼터로 조성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확답을 할 수 없다"면서 "오는 5월경에 활용방안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병원 규정관리 시스템 개발 운용 시작

업무 종합 지원 특징…비용 절감·정보화 경쟁력 70% 이상 향상 기대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은 원내 교직원들이 사용 중인 게시판 형태의 규정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 지난 1일부터 운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관리 시스템 개발은 규정의 통합관리, 표준화 된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규정의 내부 기준 위반 예방과 비정형화된 관련 업무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광대병원은 지난해 9월 규정관리 시스템 착수 보고회를 갖고 (주)아이앤티시스템(www.intsystem.co.kr)을 개발사로 선정, 전국 대학병원 중 최초로 효율성이 우수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기존 웹에서 열람과 검색만 가능했던 규정이, HWP등이 자동으로 변환 서비스되는 시스템으로 개발 되면서 규정 정보간의 신구대비생성 및 통계관리, 수정, 삭제는 물론 통합적, 부서별, 사용자별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도입 된 규정관리 시스템(LMX system)은 규정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점이 특징으로 규정 업무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규정업무 정보화 경쟁력이 크게는 70% 이상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두영 원광대병원장은 "이번에 도입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으로 규정 정보 관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환자와 진료의 질적 향상만이 아닌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경영 성과가 뒷받침되어야만 발전적인 병원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라고 소감을 피력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주거환경 저해 불법 건축물·광고물 집중 단속

군산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건축물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건축물 단속대상은 주거 밀집지역 다가구주택 방쪼개기로, 이는 가구수를 증가시켜 주거 과밀화를 유발하며 인근 도로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불법건축 행위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사용기피행위에 대해 원상회복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월 한 달을 불법광고물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내전역을 대상으로 현수막 및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기간에 적발되는 인도 위 불법 입간판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계도 후,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및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고자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 구성중에 있다.

이를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민과 함께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건축 관련 법질서를 회복하고 범시민 준법의식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신동환 군산시 옥도면 연도어촌계장 '수산인의 날' 행사 산업 포장 수상

지난 1일 개최된 '수산인의 날'에 행사에서 군산시 옥도면 신동환 연도어촌계장이 산업 포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수산인의 날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산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산업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공유하는 등 수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수상자인 신동환 어촌계장은 옥도면 연도에서 태어나 청년회장과 연도어촌계장을 역임하며 마을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봉사해 왔다.

특히 2007년도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 당시 피해대책위를 구성해 방제작업 및 피해어장 복원 현장에서 열과 성의를 다했다.

또한 2008년도부터 군산시수협 어촌계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간 어업분쟁 및 업종간 어업분쟁을 통해 어업인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수산정책 개발을 위한 자문과 건의를 통해 지역 수산업 발전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대회 개최

원불교 9인 선진 집중조명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원장 김도종 총장)은 오는 8일 원불교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에서 원불교 9인 선진(九人先進)을 집중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원불교 9인 선진은 소태산 대종사의 첫 제자 9인으로서 일산 이재철(一山李載喆), 이산 이순순(二山李旬旬), 삼산 김기천(三山金幾千), 사산 오창건(四山吳昌建), 오산 박세철(五山朴世喆), 육산 박동국(六山朴東局), 칠산 유건(七山劉乾), 팔산 김광선(八山金光旋), 정산종사(鼎山宗師) 등이다.

9인선진은 원불교 교단 창업기에 소태산 대종사와 더불어 저축조합운동, 방언공사(防堰工事), 백지혈인(白指血印), 법인성사(法認聖事) 등을 직접 이끌며, 오늘날 원불교의 초석을 다진 인물들로서 원불교에서는 불교의 10대 제자나 기독교의 12사도와 같은 위상을 가진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지방세 연찬회 최우수상 수상

군산시가 '2016년 지방세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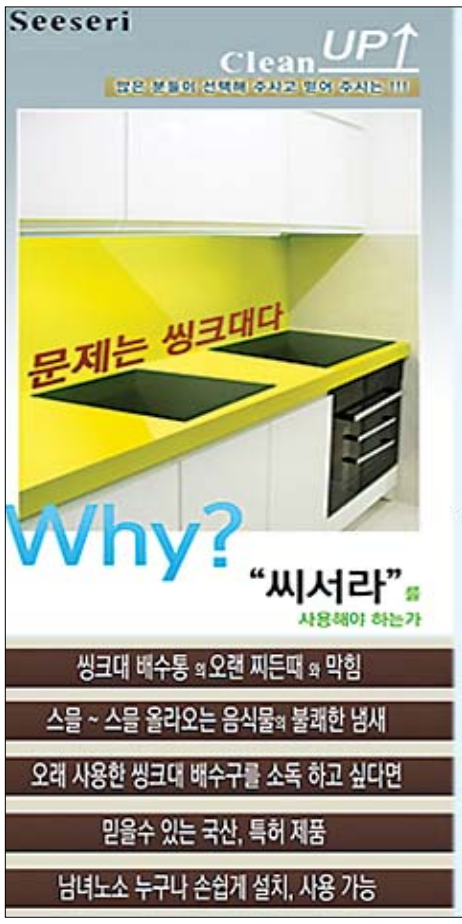
전북도 주관으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부안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2016년 지방세 연찬회'에는 전북도와 시·군 지방세담당공무원, 유관기관 등 1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찬회는 급변하는 지방세제 환경에 대응하고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연찬회에서는 군산시 징수과 이상철(세무8급) 직원이 'Smart Wetax App. 개선을 통한 창조징수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심사위원 및 연찬 참가자들로부터 실현가능성 및 창의성 부분에서 많은 공감과 좋은 점수를 얻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또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군산시는 우수시군으로 평가 받아 기관 표창과 유공공무원(세무과 재산세계장 박식) 표창을 받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군산=문정곤기자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제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게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젼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